

서민 삶 갈수록 팍팍...먹거리 물가 줄인상에 아우성

지난달 쌀·라면 등 생필품 물가 1년 만에 최고 3.5%↑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에 공공 물가도 상승폭 커져
광주시 버스·택시요금·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 만지작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최근 1년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하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계란부터 각종 생선 등 수산 물 상승폭이 컸으며, 이상기후 여파로 수박 등 제철 과일 물가도 크게 올랐다. 특히 쌀과 곡물, 라면 등 주요 식료품은 물론 공공서비스 물가까지 상승하면서 서민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지수는 125.75로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3.6%) 이후 1년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크게 웃돌았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말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올 5월까지 2.0~3.0% 수준을 기록했지만, 6~7

월 두달 연속 3% 증반으로 치솟았다.
이번 먹거리 물가 상승세는 기록적인 폭우·폭염 등 이상기후 여파로 인한 수급 불안과 더불어 가공식품 출고기도 지속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폭염으로 인해 각종 어채류, 과일류 등의 생육이 부진했고, 폭우 피해를 입은 농가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품목별로는 어류 및 수산물 물가 상승폭이 7.2%로 가장 컸다. 어류 및 수산 물가 상승률은 2023년 7월(7.5%) 이후 2년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고, 두달 연속 7%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밥상 단골 메뉴들의 상승폭이 컸다. 수산물에서는 오징어채(42.9%), 조기(13.4%), 고등어(12.6%) 등의 상승폭이 컸고, 쌀도 7.6% 상승해 2024년 3월(7.7%) 이후 16개월만에 7%대 상승률

을 보였다. 이 밖에 빵 및 곡물(6.6%)은 23개월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가공식품들의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라면(6.5%)는 3개월 째 6%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과자·빙과류 및 당류(5.0%) 물가도 크게 뛰었다. 비주류 음료에서는 커피·차 및 코코아(13.5%),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3.4%) 가격이 비교적 큰 폭 오름세를 보였다.
여기에 대중교통 요금 등이 포함되는 공공서비스 물가도 덩달아 뛰면서 가계 지출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전국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 이하'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3월 1.4%로 급등했다. 이어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달 다시 1.4%로 확대됐다.
광주시도 지난달 21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 혁신회의' 첫 회의를 열고 버스 요금 인상, 노선 개편 등 논의를 시작했다. 시는 또 택시요금 현실화를 주제로 시민공청회를 열어 올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기본요금 4800원(기본 거리 1.7km), 거리운임(132m)·시간운임(32초)당 100원으로 잠정 결정할 상태다.
시는 이 밖에도 7년 동안 동결해온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용역 결과, 요금 인상안이 제시됨에 따라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도 하반기 전기·가스·철도 등 인상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SK스토아 Wa함께적금’ 1만좌 한정 판매

최고 연 3.00% 금리 적용

광주은행은 “오는 10월 31일까지 ‘[SK스토아] Wa함께적금’을 1만좌 한정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SK스토아] Wa함께적금은광주은행이SK스토아와 제휴를 통해 출시했으며, 만 14세 이상 실명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한 6개월제 정기적금 상품이다.
해당 상품에 가입한 뒤 매월 5만원 이상 납입 시 매월 SK스토아 적립금 2000원과 8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고, 만기 시 6만원 상당의 쿠폰팩을 더해 총 12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월 납입한도는 최대 50만원으로, 광주Wa뱅크 앱, 모바일웹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정액적립식 기준 연 2.60%(자유적립식 연 2.40%)이며,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3.00%(자유적립식 연 2.80%)까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마케팅 수신 동의 시 연 0.20%포인트(p), 최근 3개월 내 당행 예·적금



신규 및 보유 이력이 없는 경우 연 0.20%p로 최대 0.40%p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변미경 광주은행 디지털본부 부행장은 “이번 상품은 목돈 마련의 즐거움과 제휴 혜택을 동시

에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의 제휴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해외 프리미엄

유·아동 브랜드 강화

광주신세계는 “새로운 해외 프리미엄 유·아동 브랜드를 유지하는 등 라인업을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8일 본관 6층에 북유럽 아동복 브랜드 ‘몰로’를 새로 선보였다. 몰로는 강렬한 색상과 재미있는 프린트를 통한 북유럽 특유의 독특한 패턴이 특징으로 신생아부터 16세 아동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몰로는 오픈 기념 프로모션으로 구매 시 100% 확률로 당첨되는 럭키드로우 참여 스탬프를 제공하며, 20만원 이상 구매 시 지비츠를 증정한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본관 6층 리틀그라운드 매장에서 프랑스 베이비 브랜드 ‘아틀리에 슈’ 제품도 내놔다.
특히 아틀리에 슈의 속싸개 블랭킷은 최근 MZ



세대 부모들의 아이템으로 선물용으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회전목마 속싸개, 몽소 턱받이, 몽소 캐시미어 블랭킷 등이 있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해외 프리미엄 유·아동 브랜드들을 광주신세계에서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1~10일 수출 4.3%↓ ...대미수출 14.2%↓

반도체·車·선박은 호조세 지속

이달 초 수출이 조업일수 등 영향으로 감소세 출발했다. 그나마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선방에 힘입어 일평균 수출액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47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달러

로 9.3% 늘었다. 올해 조업일수는 7.0일로 작년 같은 기간(8.0일)보다 하루 적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5.9% 늘었다. 6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다. 반도체·자동차 등이 증가세를 견인했지만 미국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밀어내기’ 영향도 일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달 초에도 주력 품목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1~10일 수출은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12.0%), 선박(81.3%), 승용차(8.5%) 등에서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19.4%), 무선통신기기(-4.5%) 등은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0.0%), 미국(-14.2%), 유럽연합(EU)-34.8%)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다. 베트남(4.1%), 대만(47.4%) 등의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0일 수입액은 159억 달러로 13.6%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무선통신기기(8.0%) 등에서 늘었고 원유(-14.2%), 반도체(-8.4%), 가스(-29.5%), 석유제품(-1.7%) 등은 줄었다. /김해나 기자 khn@

GICON 광주음악창작소 뮤지션 제작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오는 18일까지 2025 광주음악창작소 뮤지션 제작지원 사업인 ‘Local Sound Circle’의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고, GICON이 주관하는 광주음악창작소는 광주지역의 음악 산업 기반을 조성 및 성장을 위한 인프라

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뮤지션 제작지원 사업은 지역 뮤지션들의 창·제작 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의 소리’를 주제로, 광주지역의 뮤지션 총 8팀을 선발한다. 분야별로 인큐베이팅 지원팀 4개, 일반 지원팀 4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뮤지션을 대상으로 녹음·믹

싱·마스터링·음반 디자인 등 음반 제작, 발매, 유통, 홍보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또 제작 지원 과정에서 송캠프(Song camp)를 개최해, 전문 음악 프로듀서와의 협업을 통해 참여 뮤지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작 음반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전문 프로듀서로는 이진원, 홍범규, 핑크론, 진영태 등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전문가와 지역 프로듀서 서정훈, 오영석, 최승민, 김정은이 참여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남양건설, 주월동 지역주택조합과 재협의를기로

공사비 증액 요구 논란 관련 물가 등 정확한 인상 금액 산정 나서

남양건설이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공사비 증액 요구’ 논란과 관련해 재협의를 나서기로 했다.
남양건설은 11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조합)이 ‘부당한 공사비 증액 요구 철회’를 촉구한 것에 대해 “공사 기간 지연과 국제 정세 악화, 코로나 파동으로 자재·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건설상 상승 요인 등을 반영해 물가 상승 금액으로만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남양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합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공사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 잔여 공사를 재개하면서 건물을 완공하는 과정까지 실 발생 비용만으로 마무리하려했으나, 자금적 어려움이 취약해 추가 자금 선투입에 한계가 있었다”며 “물가 인상 금액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업체별로 정확히 인상 금액을 산정한 후 해당 금액에 대해 조합과 재협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성 위기를 겪는 남양건설이 지난해 6월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조합이 일반분양자 환급금 등을 떠안게 됐다”며 “그 결과 분양가(34평 기준)가 최초 4억 6000만원에서 8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상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남양건설은 2021년 9월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의 주상복합아파트(공동주택 304세대, 오피스텔 93세대, 상가 109실)를 착공했으나, 지난해 6월 법정관리 신청 이후 10개월째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DL케미칼, 여천NCC 2000억원 유상증자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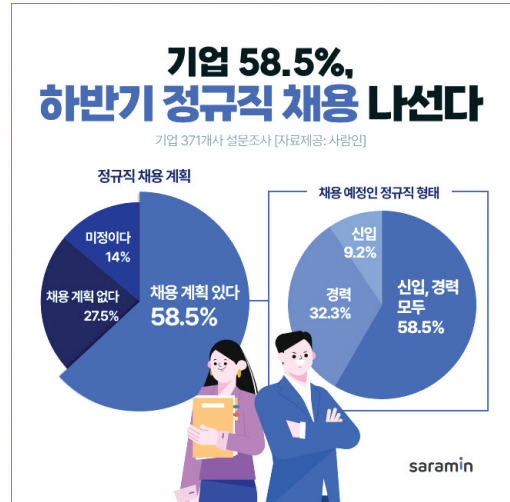
여천NCC 공동 대주주인 DL그룹이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부도 위기를 맞은 여천NCC(광주일보 8월 11일자 1면)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과 관련해 유상증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DL케미칼은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2000억원 유상증자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DL그룹 지주회사인 ㈜DL은 DL케미칼 주식 82만3086주를 1778억원에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999년 4월 한화그룹과 DL그룹이 공동 설립한 석유화학 합작법인 여천NCC는 한화솔루션(옛

한화석유화학)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이 지분 50%씩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업계에서 예닐레 생산능력 3위 기업이지만 2020년대부터 본격화한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었다. 최근에는 전남 여수 3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3100억원의 자금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대주주인 한화와 DL이 자금 추가 지원을 놓고 다수간 입장차를 보여 이견 조율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연합뉴스

하반기 고용 회복 전망 속 경력직 선호 여전

기업 10곳 중 6곳 정규직원 채용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업 10곳 중 6곳은 정규직원 채용에 나설 예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대부분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에 집중하면서 사회 초년층 고용은 여전히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발표한 ‘하반기 채용 계획’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58.5%가 올 하반기에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채용 계획이 없다’는 27.5%, ‘미정’이 14%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이 73%로 정규직 채용 계획 확정 비중이 컸고, ‘100인 미만’ (57%), ‘300인 이상(55.2%)’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대부분 기업들은 여전히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을 채용하겠다고 답한 58.5%의 기업 가운데, 32.3%는 ‘경력만 채용한다’고 답했다. 이를 환산하면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에서 경력을 뽑는 기업 비중은 90.8%, 신입을 뽑는 기업 비중은 67.7%로 큰 차이가 났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채용 계획 조사에서는 경력을 뽑는 기업 비중이 91.9%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신입을 뽑는 기업 비중이 83.6%에 달했던 것과 대비된다. 반기 만에 신입 채용 비중이 16%포인트(p)나 하락한 것이다.
하반기에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정규직 사원을 채용하려는 이유로는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가 58.1%로 가장 많았고, ‘인력들의 퇴사가 예정되어서’ (28.1%),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4%), ‘사업을 확장해서’ (18.9%) 순으로 집계됐다.
채용 방식은 ‘수시채용만 활용’ (59.2%), ‘공개채용과 수시채용 모두 활용’ (34%), ‘공개채용만 활용’ (6.8%) 등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채용될 신입사원들의 초봉은 평균



3298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구간별로 ‘3000만~3500만원 미만’ (31.3%), ‘2500만~3000만원 미만’ (29.9%), ‘3500만~4000만원 미만’ (19%), ‘2500만원 이하’ (7.5%) 등 순이었다.
경력직 채용의 경우 수시·상시채용을 주로 활용할 예정이며, 연차별로 ‘3년’ (30.5%), ‘5년’ (23.4%), ‘2년’ (16.2%), ‘1년’ (13.7%), ‘10년’ (6.6%) 등 비교적 저연차 경력직의 선호도가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사람이인 37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06.77	(-3.24)
↑ 코스닥	811.85	(+2.58)
↑ 금리 (국고채 3년)	2.420	(+0.011)
환율 (US D)	1389.60	(0.00)
〈오후 4시 55분 기준〉		